

청소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Trajectories of Change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 교수 이주리**

Dept. of Child-Welfare,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Lee, Ju-Rh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parents, parents' monitoring, and deviant peers on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Participants were 2528(1251 male and 1277 female) adolescent from the 2004(age:16 years)-2006(age:18 years) panel 2 data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Results of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dicated that (1) Individual differenc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nital levels and changes were significant. (2) Attachment to parents influenced both initial levels and changes of internalizing problems. (3) Attachment to parents and parents' monitoring influenced initial levels of externalizing problems, and deviant peers influenced both initial levels and changes of externalizing problems.

▲주요어(Key Words) : 내면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 외현화(externalizing problems), 발달궤적(trajectories of change),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여러 가지 내면화 및 외현화의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크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예측 요인들로 부모와 또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애착과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

한 부모양육태도(Brody et al., 2002; Galambos et al., 2003; Laird et al., 2003; Marsh, 2007; Scaramella et al., 2002)와 일탈친구와의 교체(Brendgen et al., 2000; Espelage et al., 2003; Galambos et al., 2003; Kiesner et al., 2003; Scaramella et al., 2002)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련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로 이루어졌는데(고정자, 2005; 박진경·도현심, 2001; 유성경·이소래, 2001; 이경진·조성호, 2004), 이를 통해서 인과관계의 방향이 명확히 성립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모 및 또래의 역할이 청소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다. 횡단분석이 아닌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진 바와 같이 첫째, 시간에 따른

* 이 연구는 2008년 중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이주리 (E-mail : julie@cau.ac.kr)

변화율을 고려하지 않고 들쭉, 단지 집단의 평균만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는 명확한 발달궤적을 도출할 수 없으며 변화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기를 반복적으로 측정한 종단자료를 대상으로,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분석할 수 있고 그러한 변화의 개인차를 밝힐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사용하여 부모양육태도 및 일탈친구가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기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추적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는 9학년에서 11학년까지 점차 증가하였지만, 이는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rber et al., 2002). 외현화 문제에 대한 개인차도 보고되었는데, Galambos 등(2003)은 반사회적 행동, 약물 남용 등의 외현화 문제에서 유의한 개인차가 나타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경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만약 개인차가 나타난다면 무엇이 그러한 개인차를 형성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Galambos 등(2003)이 검증한 연구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이러한 개인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와 일탈 또래로 나타난다. 그들은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년 6개월 간 발달궤적을 추적하였는데, 특히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낮거나, 일탈 친구와의 교제가 심할수록 아동의 내면화 혹은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대한 부모와 일탈 또래의 유의한 영향은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발달에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이는 자녀에 대한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측면에서 부모-자녀 간 애착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측면에서 부모의 감독이 얼마나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중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현화 행동 수준이 높아졌으며 우울 증상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sh, 2007). 이는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시사되는데, 자녀에 대한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Fauber et al., 1990). 보다 최근의 연구인 Scaramella 등(2002)의 연구에서도 덜 양육적이고 덜 관여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초기 반사회적 행동 수준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비행에 보다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과 학교폭력에 대하여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김재엽·정운경, 2007). 박성하와 김은정(2005)은 애착양식을 세분화하여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회피형 애착은 외현화 문제에, 불안양가형 애착은 내면화 문제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어떤 형태이든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부모 감독도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는데,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는 양육방식은 외현화 행동의 발달경로에서 부모의 지지와 심리적 통제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Galambos et al., 2003). Laird 등(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일탈행동 수준이 달라졌는데,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해 적게 알고 있을수록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증가하여 부모감독이 미치는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부모의 영향은 학급환경의 요인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Brody et al., 2002). 그들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부모과정과 학급과정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부모와의 질 높은 관계 속에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을 받는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 수준이 높아져 공격성 및 일탈 뿐 아니라 우울과 같은 문제들도 덜 경험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부모 감독과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역시 일치되는 결과가 보고된다. 부모의 감독정도는 성별이나 어머니의 취업여부보다도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정자, 2005). 박진경과 도현심(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감독이 여학생의 내면화 문제 수준을 낮추었는데, 이들은 또한 감독 방법을 '어머니의 유도', '자녀의 노출' 및 '어머니의 통제'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유도'가 여학생의 외현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녀 스스로 자신의행동에 대해 보고한다거나, 자녀가 행동하기 전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식의 통제적 방법보다는 자녀의 행동과 행선지에 대해 어머니가 질문하여 청소년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어머니의 유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앞선 선행연구들의 감독 개념과 일치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 애착과 부모 감독은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발달 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 뿐 아니라 또래집단에 민감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두각되기 시작하는데, 일탈친구와의 교제는 청소년들의 발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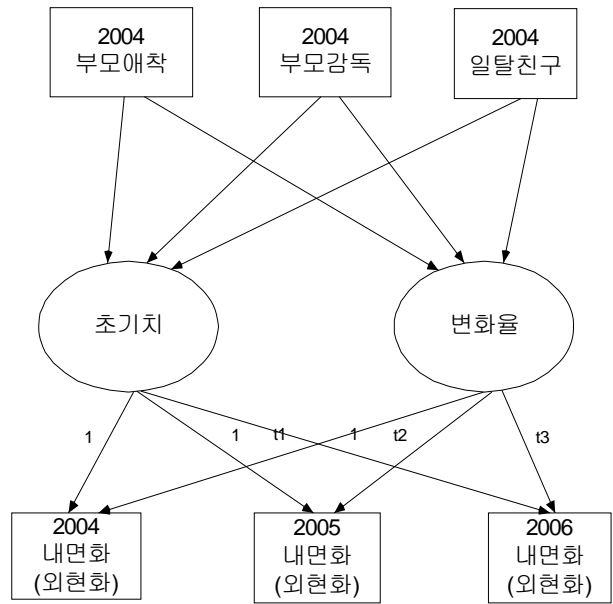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특히, 일탈친구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또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공격성 및 충동성, 자아개념,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 갈등, 부모 감독, 학교 부적응,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 그리고 비행 친구 중 비행친구가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균, 2005). 국외의 종단연구들을 통해 일탈친구와 외현화 문제 간의 인과관계는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데, Scaramella 등(2002)의 연구에서 일탈친구와의 교제는 1년 후의 일탈행동을 촉진시켰으며 Espelage 등(2003)도 또래집단의 따돌림과 싸움은 개인의 공격수준을 통제된 후에도 이후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문제행동과 일탈을 저지르는 또래 집단에 속해 있을 경우 개인의 문제행동과 일탈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Kiesner et al., 2003).

몇몇 연구이지만, 일탈친구와의 교제는 내면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탈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일탈행동 수준이 더 높았을 뿐 아니라 우울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났는데, 친한 친구가 전혀 없는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높았다(Brendgen et al., 2000). 발달궤적을 추적한 Galambos 등(2003)의 종단연구에서는 일탈친구와의 교제가 청소년들의 최초의 내면화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일탈친구와의 교제 정도는 부모요인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발달 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시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발달궤적을 추적하고, 그러한 개인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검증하기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Duncan et al., 1999; 정익중,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통해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이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까지의 추적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그러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중3-고2)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은 개인차가 나타나는가?



<그림 1> 분석모형

<연구문제 2>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중 2 패널 데이터틀을 사용하였다. 이는 2003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각각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그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528명(남 1,251명, 여 1,277명)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면화 문제 변인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2차년도 자료(2004년)부터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2004년)-4차년도(2006년)의 3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 49.5%, 여학생 50.5%이며 연령은 2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세 78.0%, 15세 21.9%, 17세 0.1%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2.0%, 고졸 45.4%, 전문대졸 7.5%, 대졸 28.6%, 대학원 이상 6.5%였고, 어머니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7.4%, 고졸 59.6%, 전문대졸 5.0%, 대졸 16.5%, 대학원 이상 1.5%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 종사자가 24.2%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5%, 판매 종사자 14.0% 등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무직(가정주부)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판매 종사자 17.0%, 서비스 종사자 10.3% 등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 8.7%, 101-200만원 29.7%, 201-300만원 30.8%, 301-400만원 16.8%, 401만원 이상 13.8%였다.

2. 조사도구

1)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부모애착' 6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8이었다.

2)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4문항의 부모의 행동적 감독을 묻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8이었다.

3) 일탈친구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개방형으로 기입된 6가지 일탈행동(음주, 흡연, 무단결석 등)을 한 친구의 수로 측정하였다.

4) 내면화 문제

내면화 문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6문항의 '우울·불안·자살충동'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등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likert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중 3부터 고2까지 각각 차례로 .822, .830, .832였다.

5) 외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20문

항의 '일탈행동(14문항)' 과 '공격성(6문항)'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일탈행동 문항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 결석'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등으로서 각 문항들은 2점 척도(1점: 전혀 없다, 2점: 있다)로 측정되며, 공격성 문항은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등으로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중 3부터 고2까지 각각 차례로 .728, .722, .720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은 다음과 같은 2단계로 분석되었다.

첫째, 시기별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각각 관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잠재요인인 초기치와 변화율에 연결시킨다. 이 때, 초기치의 요인 적재량은 모두 1로 고정하였다. 변화율의 요인 적재량에 대해서는 선형 변화모형, 계급 변화모형 등이 있는데 (Brody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요인 적재량을 1차년도부터 차례로 각각 0, 1, 2로 설정하는 선형 변화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한다는 가정인데, Lewinsohn 등(1993)과 Moffitt(1993)의 연구에서 청소년기가 지나는 동안 우울, 비행과 같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Allen et al., 2007에서 재인용).

둘째, 위와 같이 잠재성장요인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석하여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검증한 후 각 예측변인들을 잠재요인인 초기치와 변화율에 연결시켜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의 잠재성장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Ferrer et al., 2004; Galambos, et al., 2003).

$$1\text{단계: 내면화(외현화)문제}_{it} = \beta_{0i} + \beta_{1i}(\text{Time}_{it}) + \varepsilon_{it}$$

여기서 내면화(외현화)문제_{it}는 각 측정시기에서의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를 말하고, β_{0i} 는 절편으로서 개인의 내면화(외현화) 문제의 초기치를, β_{1i} 는 기울기로서 시간에 따른 개인의 내면화(외현화) 문제의 변화를 나타낸다. Time_{it} 는 연구가 진행된 측정시간(년수)이며 ε_{it} 는 측정오차이다.

$$2\text{단계: } \beta_{0i} = \pi_{00} + \pi_{01}(\text{부모애착}) + \pi_{02}(\text{부모감독}) + \pi_{03}(\text{일탈 친구}) + U_{0i}$$

$$\beta_{1i} = \pi_{10} + \pi_{11}(\text{부모애착}) + \pi_{12}(\text{부모감독}) + \pi_{13}(\text{일탈 친구}) + U_{1i}$$

위와 같은 2단계의 식을 통해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β_{0i})와 변화율(β_{1i})을 예측하는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의 영향을 검증하게 된다. U_{0i} 는 오차를 나타낸다.

III.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2. 변인들의 상관관계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에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사용된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내면화 변인들 간에는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모두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p < .01$) 내면화 문제가 상당히 안정적인 속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예측변인들과 내면화 문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2004년)과 2004년-2006년까지의 내면화 문제는 모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두 $p < .01$), 부모감독(2004년)과 2004년, 2005년의 내면화 문제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각각 $p < .01$, $p < .05$).

<표 3>에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사용된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외현화 변인들 간에도 내면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모두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p < .01$) 외현화 문제 역시 상당히 안정적인 속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예측변인들과 외현화 문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2004년)과 2004년-2006년까지의 외현화 문제는 모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두 $p < .01$), 부모감독(2004년)과도 2004년-2006년의 외현화 문제는 모두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모두 $p < .01$), 일탈친구(2004년)와 2004년-2006년까지의 외현화 문제는 부모 변인들과 달리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모두 $p < .01$).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 인	점수 가능범위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최 대		
부모애착(2004)	6	30	20.65	4.47
부모감독(2004)	4	20	13.61	3.33
일탈친구(2004)	0	개방형	2.75	7.68
내면화(2004)	6	30	16.10	4.61
내면화(2005)	6	30	15.99	4.61
내면화(2006)	6	30	15.99	4.61
외현화(2004)	20	58	31.22	4.75
외현화(2005)	20	58	30.82	4.61
외현화(2006)	20	58	30.70	4.58

<표 2>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사용된 변인들 간 상관관계

	1. 부모애착(2004)	2. 부모감독(2004)	3. 일탈친구(2004)	4. 내면화(2004)	5. 내면화(2005)	6. 내면화(2006)
1	1					
2	.541**	1				
3	-.100**	-.059**	1			
4	-.131**	-.068**	.027	1		
5	-.111**	-.044*	.038	.442**	1	
6	-.064**	-.035	.019	.374**	.475**	1

* $p < .05$, ** $p < .01$

<표 3>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사용된 변인들 간 상관관계

	1. 부모애착(2004)	2. 부모감독(2004)	3. 일탈친구(2004)	4. 외현화(2004)	5. 외현화(2005)	6. 외현화(2006)
1	1					
2	.541**	1				
3	-.100**	-.059**	1			
4	-.106**	-.088**	.237**	1		
5	-.092**	-.078**	.187**	.509**	1	
6	-.088**	-.112**	.147**	.463**	.567**	1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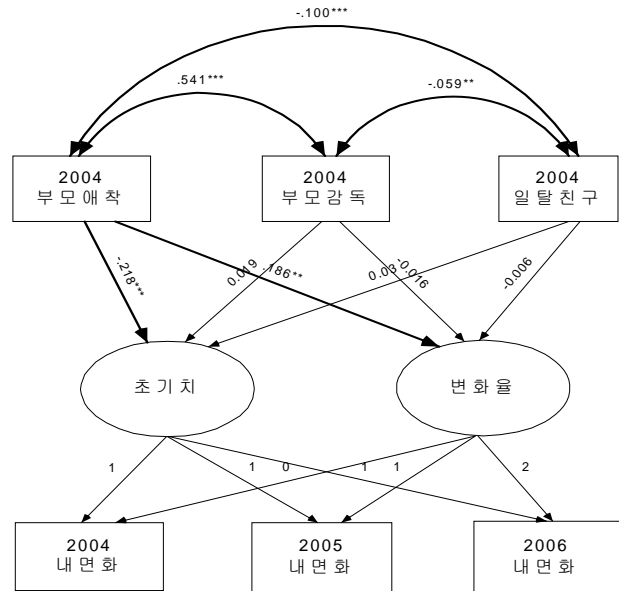
<표 4>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초기치	평균	초기치	변량	변화율	평균	변화율	변량	모델 적합도
내면화 문제	16.027***	8.692***	.181***	.704***	Chi-square= 11.191, df=1, p=.001, NFI=.991, CFI= .992, RMSEA= .064				
외현화 문제	30.914***	10.662***	.180***	.684***	Chi-square= 6.656, df=1, p=.010, NFI= .996, CFI= .997, RMSEA= .047				

***p<.001

3.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초기치와 변화율을 잠재요인으로 하여 관측변인인 2004년-2006년까지의 내면화 및 2004년-2006년까지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각각 설정하였다. 초기치에서 각 관측변인들로 가는 경로계수로 모두 1을 부여하였으며 변화율에서 각 관측변인들로 가는 경로계수는 선형변화모형에 따라 1차년도부터 각각 차례로 내면화 문제는 0, 1, 2, 외현화 문제도 0, 1, 2 를 부여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내면화 문제 모형의 경우 Chi-square= 11.191, df=1, p=.001, NFI= .991, CFI= .992, RMSEA= .064로 나타나 선형변화모형이 매우 우수하게 수용되었다. 외현화 문제 모형의 경우도 Chi-square= 6.656, df=1, p=.010, GFI= .996, NFI= .996, CFI= .997, RMSEA= .047로 나타나 선형변화모형이 매우 우수하게 수용되었다. 초기치와 기울기의 평균과 변량에 대한 추정치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내면화 문제의 초기치 변량은 8.692(p<.001)로서 내면화 문제의 초기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181(p<.001)으로 내면화 문제는 청소년기를 통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변량 역시 .704(p<.001)로 나타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내면화 문제의 시간에 따른 변화궤적이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 평균은 30.914(p<.001), 변량은 10.662(p<.001)로서 내면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180(p<.001)으로 외현화 문제는 청소년기를 통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변량 역시 .684(p<.001)로 나타나 청소년기를 통해 외현화 문제 행동의 변화궤적에는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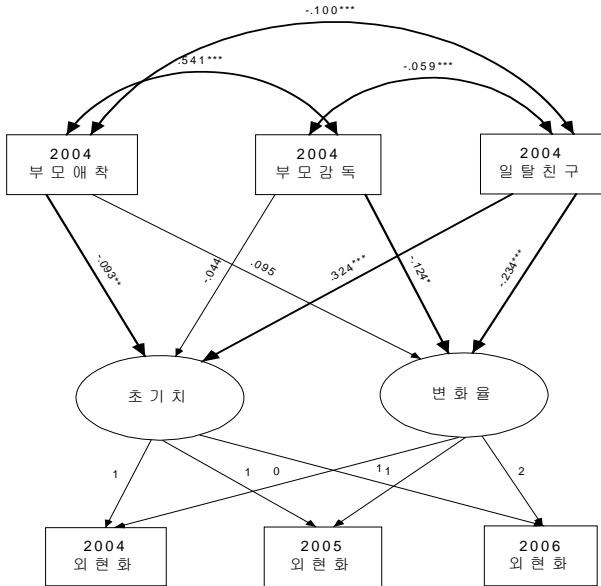
Chi-square= 11.5, df=4, p=.021, GFI= .998, AGFI= .992, CFI= .997, RMSEA= .027

note. 굵은 선 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임.

<그림 2>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내면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4.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를 추가하여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 과



* $p<.05$, ** $p<.01$, *** $p<.001$
 Chi-square= 7.348, df=4, $p=.119$, GFI= .999, AGFI= .995,
 CFI= .999, RMSEA= .018
 note. 굵은 선 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임.

<그림 3>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외현화 문제의 발달과정에 미치는 영향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먼저, <그림 2>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내면화 문제의 발달과정에 대한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의 영향이 제시되어 있다. 부모애착은 초기치($\beta = -.218, p<.001$)와 변화율($\beta = .186, p<.01$)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내면화 문제의 초기치 수준은 낮아지고 변화율의 증가속도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내면화 문제에 대한 변화율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은,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의 초기치 내면화 문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탈친구와 부모감독은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림 3>에는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외현화 문제의 발달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있다. 부모애착은 초기치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093, p<.01$), 부모감독은 기울기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24, p<.05$).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외현화의 초기치 수준은 낮아지고,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외현화의 증가속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일탈친구는 초기치($\beta = .324, p<.001$)와 변화율($\beta = -.234, p<.001$)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일탈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더 높아지고, 변화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변화율의

증가속도가 더 낮아지는 것은, 일탈친구가 많은 청소년들의 초기치 외현화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면화 문제에서는 부모애착이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외현화 문제에서는 일탈친구가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면화 문제에는 부모애착이, 외현화 문제에는 일탈친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하여 3년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과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가 진행될수록 우울·불안·자살충동 등 내면화 문제 뿐 아니라 공격성 및 일탈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발달과정은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Galambos et al., 2003; Garber et al., 2002)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한 발달과정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환경에 따라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애착이었다.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은 내면화 문제의 초기치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박성하와 김은정(2005), Marsh(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내면화 문제의 발달과정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은 내면화 문제의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들 일수록 내면화의 초기치 수준은 낮았지만 변화율의 증가속도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결과에 대하여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른 내면화 문제 수준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식의 단순 기술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 간에는 강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은 내면화 문제의 초기치가 상당히 낮았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화 문제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행연구결과들(고정자, 2005; 박진경·도현심, 2001; Brendgen et al., 2000; Galambos et al., 2003)과 달리 부모감독

과 일탈친구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상대적 영향력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고정자, 2005; 박진경·도현심, 2001; Brendgen et al., 2000)와 달리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부모애착과 함께 동시에 예측변인으로 설정되었다. 그만큼 내면화 문제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기에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의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연령의 문제이다. 선행연구들(고정자, 2005; 박진경·도현심, 2001; Brendgen et al., 2000; Galambos et al., 2003)은 모두 중학생인 초·중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중기-후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모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부모애착은 초기치에, 부모감독은 변화율에, 일탈친구는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 수준은 낮았으며,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속도는 더 느려졌다. 이는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박성하와 김은정(2005)과 Marsh(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부모 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의 증가속도를 낮춘다는 Galambos et al.(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일탈친구는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일탈친구는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에 정적으로 유의하여, 일탈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이상균, 2005; Espelage et al., 2003; Kiesner et al., 2003; Scaramella et al., 2002)과 일치한다. 하지만, 일탈친구가 많을수록 변화율은 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앞선 내면화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탈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속도는 느려진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탈친구와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 간에 나타난 매우 강한 정적인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이는 일탈친구가 많은 청소년들이 최초의 측정시점에서부터 외현화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최대값의 존재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면서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애착은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에, 부모감독은 외현화 문제의 변화율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일탈친구는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탈친구의 영향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살펴본 이상균(2005)의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 가족 및 학교 관련 요인 등 그 어떤 변인보다도 일탈친구와의 교제가 청소년의 또래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내면화 문제의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은 부모애착이었으며, 외현화 문제에는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의 영향이 모두 나타났는데 그 중 일탈친구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내면화 문제에는 무엇보다 부모애착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것이다. 또래관계에 민감한 청소년기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수용적인 태도로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면 청소년들이 학교나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언제든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내면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들은 평상시에도 늘 청소년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며 들어주는 등 개방적인 의사소통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행동의 예방과 개입에는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와의 관계가 모두 필요하다. 외현화 문제는 내면화 문제와 달리,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 뿐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그리고 일탈친구의 수까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일탈친구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일탈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이 외현화 문제 행동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또래관계에 민감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결과이며, 구성원 모두가 전체적으로 일탈행동들을 저지르는 또래집단에 속해 있다면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부모들은 애착형성을 위해 애정적인 태도로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수용해주며 지지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행동적으로는 적절한 감독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가정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는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일탈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행동 수준이 높아진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적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변화에 따른 개인차를 밝히고, 예측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되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일탈친구가 청소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탈친구와의 교제에 대해 여러 종류의 일탈행동을 한 친구 수의 총합으로만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탈친구와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일탈친구와의 친밀감 정도를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 권장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통제는 행동적 통제 이외에도 심리적 통제가 포함된다. Galambos 등(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 등 3가지로 세분화하여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김재엽 · 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박성하 · 김은정(2005). 청소년기 애착, 대처양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포스터 발표, 430-431.

박진경 ·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monitoring)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유성경 · 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이경진 · 조성호(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이상균(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89-121.

Allen, J. P., Porter, M., McFarland, C., McElhaney, K. B., & Marsh, P.(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Brendgen, M. Vitaro, F., & Bukowski, W. M.(2000). Devian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2)**, 173-189.

Brody, G. H., Dorsey, S., Forehand, R., & Armistead, L. (2002). Unique and protective contribution of parenting and classroom processes to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single-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3(1)**, 274-286.

Brody, G. H., Chen, Y. F., Murry V. M., Ge, X., Simons, R. L., Gibbons, F. X., Gerrard, M., & Cutrona, C. E.(2006).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youths: A five-year longitudinal analysis with contextual moderation effects. *Child Development*, **77(5)**, 1170-1189.

Duncan, T. E., Duncan, S. C., Strycker, A. L., Li, F., & Alpert, A.(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Espelage, D. L., Holt, M. K., & Henkel, R. R.(2003). Examination of peer-group contextual effects on agg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1)**, 205-220.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4)**, 1112-1123.

Ferrer, E., Hamagami, F., & McArdle, J. J.(2004). Modeling latent growth curves with incomplete data using different typ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softw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1(3)**, 452-483.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Garber, J., Keiley, M. L., & Martin, N. C.(2002).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depressive symp-

- toms: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79-95.
- Kiesner, J. Poulin, F., & Nicotra, E.(2003). Peer relations across contexts: Individual-network homophily and network inclusion in and after school. *Child Development, 74(5)*, 1328-1343.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3)*, 752-768.
- Lewinsohn, P. M., Hops, H., Roberts, R. E., & Seeley, J. R.(1993). Adolescent psychopathology: I. Prevalence and incidence of depression and other DSM-III - R disorder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133-144.
- Marsh, P.(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Scaramella, L. V., Conger, R. D., Spoth, R., & Simons, R. L.(2002). Evaluation of a social contextual model of delinquency: A cross-study replication. *Child Development, 73(1)*, 175-195.

접수일 : 2008년 05월 30일

심사일 : 2008년 08월 09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06일